

선형 회귀  
L O

- 지도학습에는 회귀(regression)와 분류(classification)가 있다.
- 회귀 : 연속적인 값을 예측
- 분류 : 입력을 어떤 카테고리 중의 하나로 예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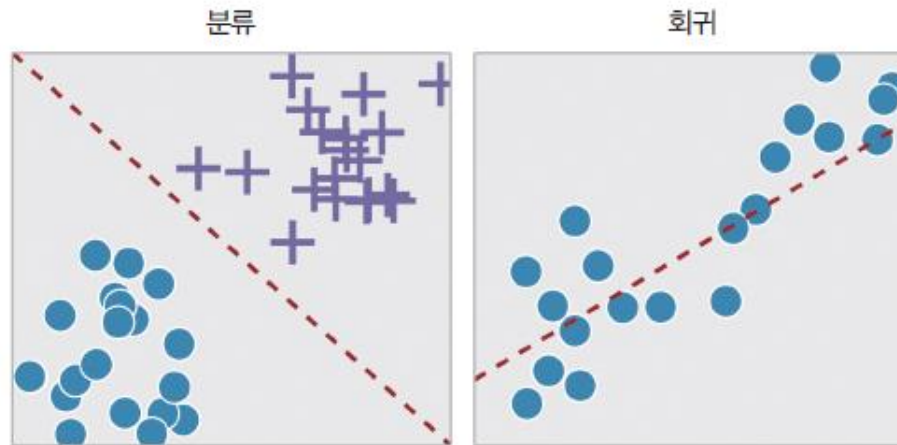


그림 4-1 회귀와 분류

- 회귀(regression)

- 데이터들을 2차원 공간에 찍은 후에 이들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찾는 문제
- $y = f(x)$ 에서 출력  $y$ 가 실수이고 입력  $x$ 도 실수일 때 함수  $f(x)$ 를 예측하는 것
- 주식 가격 예측, 온도 변화, 전력 수요 변동 등의 연속적인 값을 예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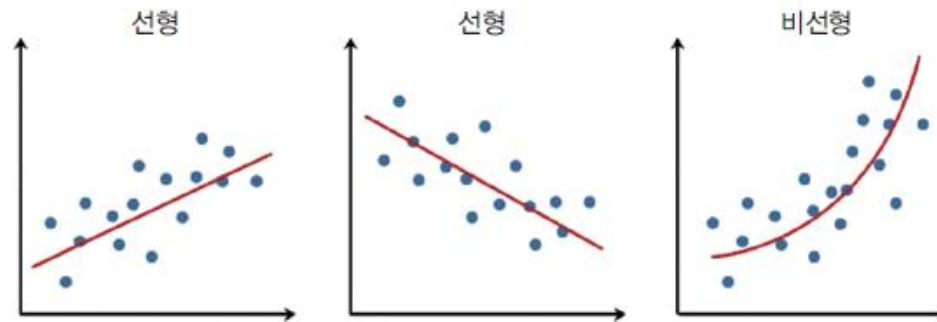


그림 4-2 회귀의 종류



- 선형 회귀(linear regression) : 선형 모델을 사용하는 회귀 문제
  - 부모의 키와 자녀의 키의 관계 조사
  - 면적에 따른 주택의 가격
  - 연령에 따른 실업율 예측
  - 공부 시간과 학점 과의 관계
  - CPU 속도와 프로그램 실행 시간 예측
- 사이트 소개 : [desmos](#)



# 선형 회귀 소개

- 직선의 방정식:  $f(x) = mx + b$
- 입력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기울기와 절편값을 찾는 문제
- 머신러닝에서는 기울기 대신에 가중치(weight), 절편 대신에 바이어스(bias)라고 한다.
- 선형 회귀의 기본식:  $f(x) = wx + b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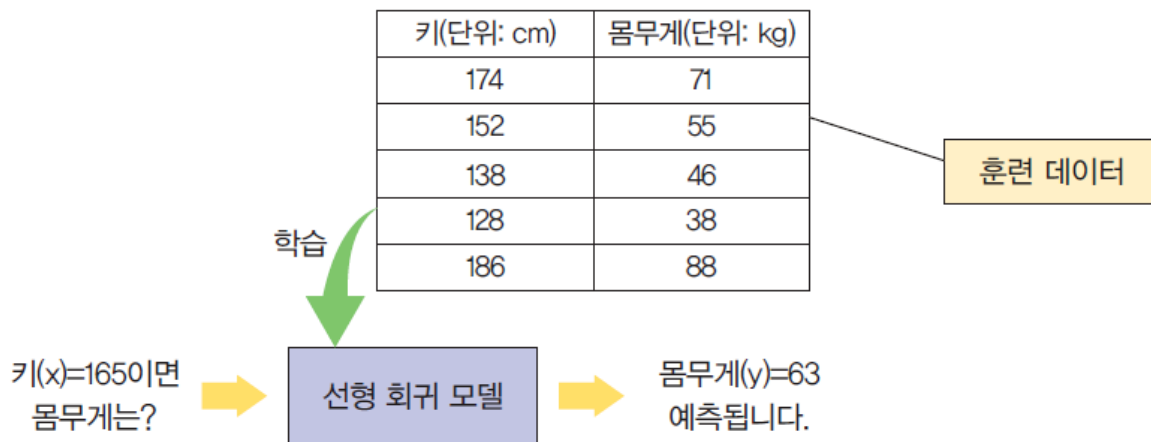


그림 4-3 선형 회귀의 예제



# 선형 회귀의 종류

- 단순 선형 회귀 : 독립 변수( $x$ )가 하나

$$f(x) = wx + b$$

- 다중 선형 회귀 : 독립 변수가 여러 개

$$f(x, y, z) = w_0 + w_1x + w_2y + w_3z$$

$$\text{매출} = w_0 + w_1 \times \text{인터넷 광고} + w_2 \times \text{신문광고} + w_3 \times \text{TV광고}$$



# 선형 회귀의 원리

- 학습 데이터와 가장 잘 맞는 하나의 직선을 찾는 것

x	y
1	2
2	5
3	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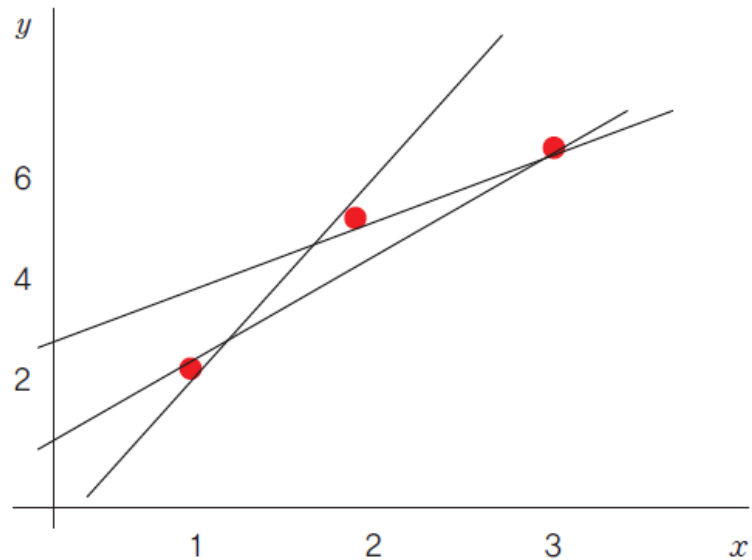


그림 4-4 데이터와 직선



# 직선과 데이터의 거리

- 간격이 적을수록 직선이 데이터와 잘 맞는다고 할 수 있다. 간격들은 음수일 제곱하여 수 있으니 간격의 제곱을 하는 것이 좋다.
- 직선과 데이터 사이의 간격을 합한 값을 손실 함수(loss function) 또는 비용 함수(cost function)라고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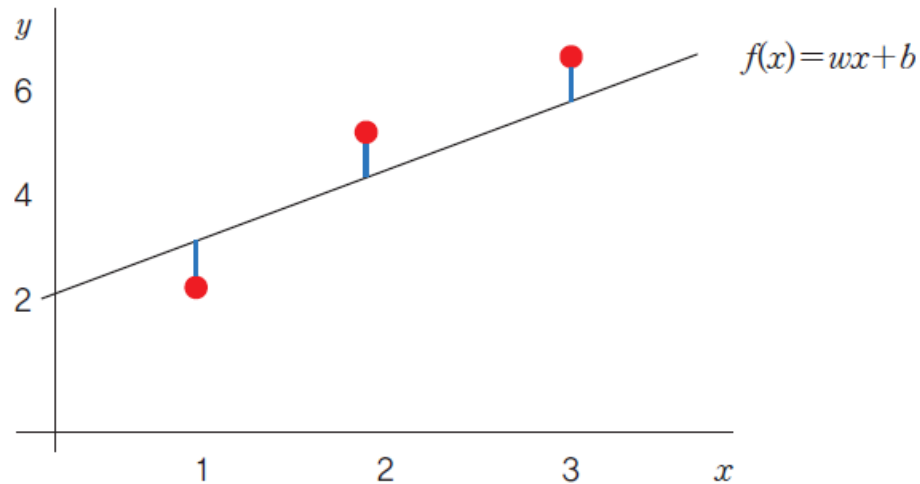


그림 4-5 데이터와 직선 간의 거리





- 평균제곱오차(MSE. Mean Squared Error)

$$Loss = \frac{1}{3}((f(x_1) - y_1)^2 + (f(x_2) - y_2)^2 + (f(x_3) - y_3)^2)$$



$$Loss(W, b) = \frac{1}{n} \sum_{i=1}^n (f(x_i) - y_i)^2 = \frac{1}{n} \sum_{i=1}^n ((Wx_i + b) - y_i)^2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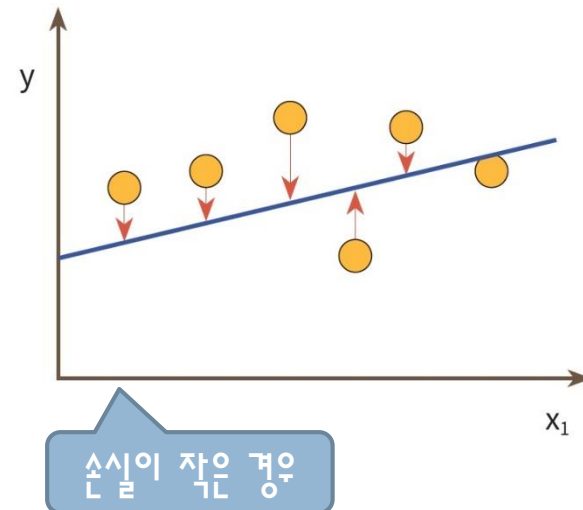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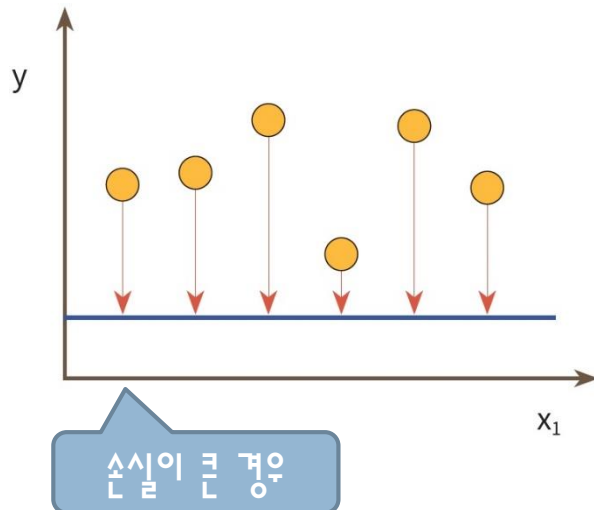


$$\underset{W, b}{\operatorname{argmin}} Loss(W, b)$$

$n$  = 훈련 데이터의 개수

- 손실함수 값을 최소로 하는  $w$ 와  $b$ 를 찾는 것 -> 이것을 학습이라 한다.

- 머신러닝에서 모델을 학습시킨다는 것은 훈련 데이터로부터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중치( $w$ )와 바이어스( $b$ )를 학습(결정)하는 것
- 손실(**loss**) : 잘못된 예측에 대한 벌점. 특정 샘플에서 모델의 예측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크기
- 모델 학습의 목표 : 모든 샘플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작은 손실을 갖는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찾는 것





# 선형 회귀에서 손실 함수 최소화 방법

-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손실 함수의 값이 최소화되는 방향을 찾아서  $w$  와  $b$ 를 변경하는 작업을 반복하게 된다. 손실 함수가 0이 되거나 0에 가까운 값이 되면 학습이 종료된다.
- 손실 함수의 값이 작아지는 방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?

# 경사 하강법 (gradient descent method)

- 가중치를 손실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현재 위치에서 손실 함수의 기울기(경사)를 계산하는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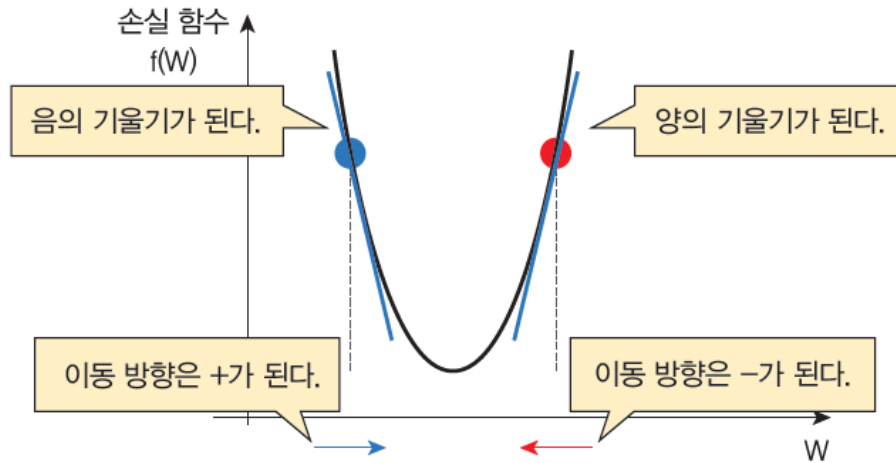


그림 4-7 경사 하강법의 이해

- 기울기가 양수로 계산되었다면, 가중치를 증가했을 때 손실이 높아진다.
- 기울기가 음수로 계산되었다면, 가중치를 증가했을 때 손실이 낮아진다.
- 따라서 손실 함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치에서 손실 함수의 기울기를 계산하여서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된다.

# 경사 하강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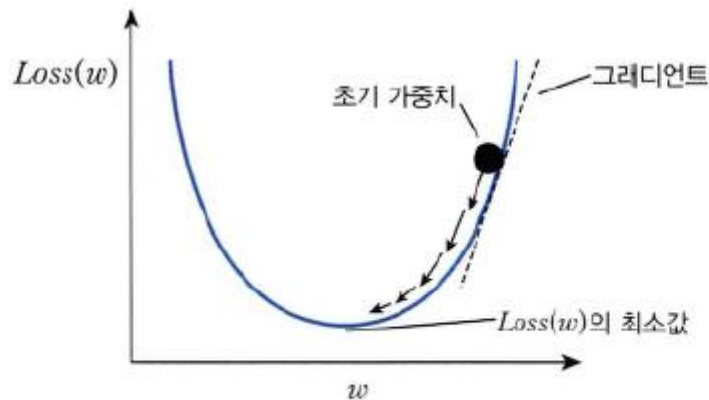


이것은 마치 산에서 내려오는 것과 유사합니다. 현재 위치에서 산의 기울기를 계산하여서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.



# 경사 하강법

- 반복적인 접근방식을 사용한다.
- 기울기가 음수이면 매개변수( $w$ )는 증가시키고, 반대로 기울기가 양수이면  $w$ 는 감소시킨다.
- $w$ 가 업데이트되면 새로운 손실값을 얻을 수 있다. 손실 함수를 다시 계산하고 기울기도 다시 계산한다. 이렇게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면 최저값을 찾을 수 있다.



그라디언트는 접선의 기울기로 이해해도 됩니다.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면 반대로  $w$ 를 감소시킵니다.



그림 4-8 경사 하강법

- 기울기의 반대방향으로  $w$ 가 한 번에 얼마씩 이동해야 할까?
- 학습률(learning rate) : 한번에 매개변수( $w$ )를 변경하는 비율
- 학습률이 아주 작으면 작은 보폭으로 여러 번 이동. 따라서 계산을 여러 번 해야 최저값에 도달할 수 있다.
- 학습률이 크면 더 큰 보폭으로 이동하게 되고 최소값을 지나쳐서 더 멀리 갈 수도. 최악의 경우 손실이 더 커질 수도. -> 발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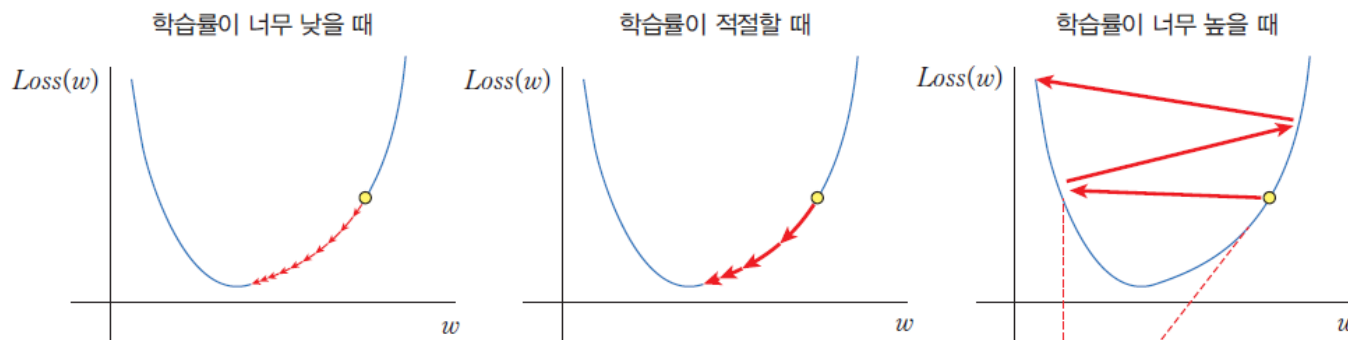


그림 4-9 학습률



# 지역 최소화 문제

- 출발점(초기값)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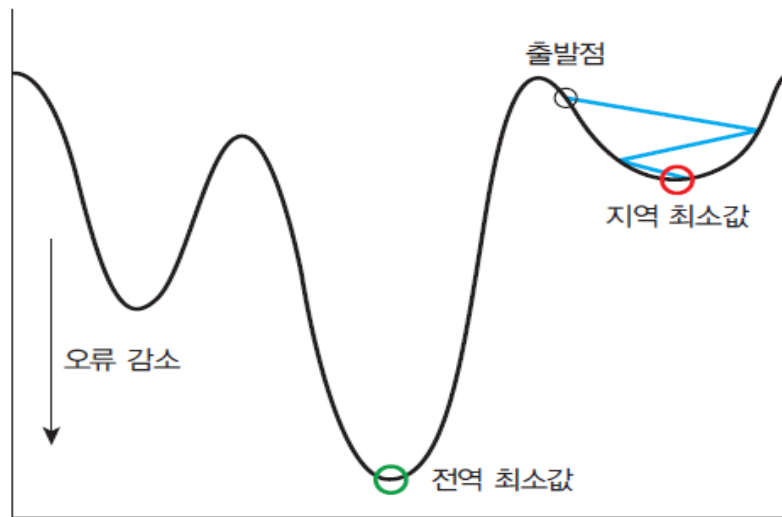


그림 4-10 지역 최소화값과 전역 최소화값





# 선형 회귀에서 경사하강법. 편미분

$$Loss(w, b) = \frac{1}{n} \sum_{i=1}^n (f(x_i) - y_i)^2 = \frac{1}{n} \sum_{i=1}^n ((wx_i + b) - y_i)^2$$

(1) 처음에는  $w$ 와  $b$ 를 모두 0으로 설정한다. 그리고 학습률을 0.01이라고 하자. 학습률은 한 번에 기울기를 변경하는 양이다.

(2) 손실 함수를  $w$ 에 대하여 편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.

$$\frac{\partial Loss(w, b)}{\partial w} = \frac{1}{n} \sum_{i=1}^n 2((wx_i + b) - y_i)(x_i) = \frac{2}{n} \sum_{i=1}^n x_i((wx_i + b) - y_i)$$

(3) 마찬가지로 손실 함수를  $b$ 에 대하여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.

$$\frac{\partial Loss(w, b)}{\partial b} = \frac{2}{n} \sum_{i=1}^n ((wx_i + b) - y_i)(1) = \frac{2}{n} \sum_{i=1}^n ((wx_i + b) - y_i)$$

(4) 우리는  $w$ 와  $b$ 를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한다.

$$w = w - 0.01 * \frac{\partial Loss}{\partial w}$$

$$b = b - 0.01 * \frac{\partial Loss}{\partial b}$$



# 선형 회귀 파이썬 구현 #1

- 넘파이, 파이썬으로 직접 코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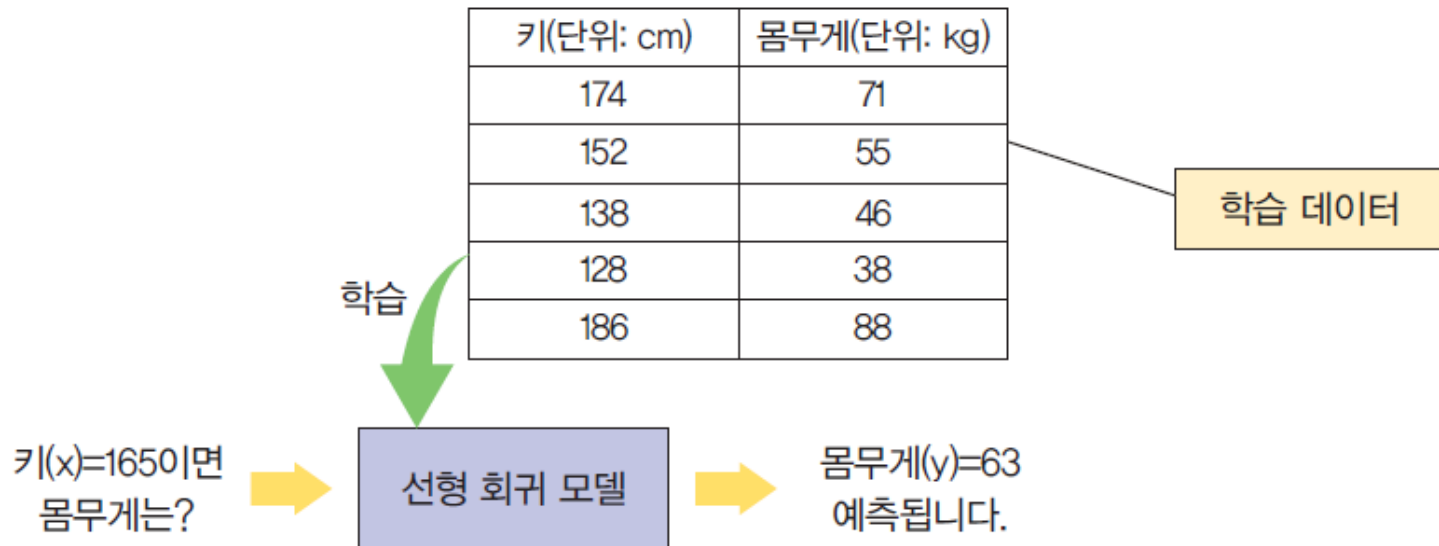
# 선형 회귀 파이썬 구현 #2

- 사이킷런(sklearn)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회귀함수 구현
- `reg.fit(X, y)`



# Lab: 선형 회귀 실습

- 인간의 키와 몸무게는 어느 정도 비례할 것으로 예상된다. 아래와 같은 데이터가 있을 때, 선형 회귀를 이용하여 학습시키고 키가 165cm 일 때의 예측값을 얻어보자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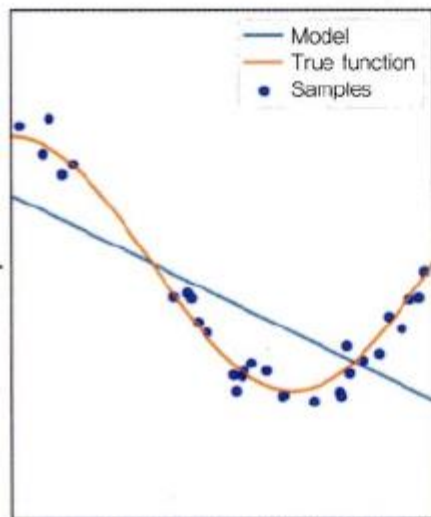
# 과잉 적합 VS 과소 적합

- 과잉 적합(overfitting)
  - 학습하는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뛰어나지만 새로운 데이터(일반화)에 대해서는 성능이 잘 나오지 않는 모델을 생성하는 것
  - 한쪽으로 편중된 데이터로 인해 발생
  - 예. 한 종류의 문제집만 계속 반복 풀이. 정작 시험은 성적이 낮아.
  - 다양한 데이터로 학습 필요
- 과소 적합(underfitting)
  - 훈련 데이터에서도 성능이 좋지 않은 경우
  - 모델 자체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. 더 나은 모델을 찾아야 한다.
  - 데이터가 부족. 특성 자체가 너무 단순해서 학습이 제대로 되지 못함
  - 예. 공은 둥글다 -> 지구, 수박 ... 오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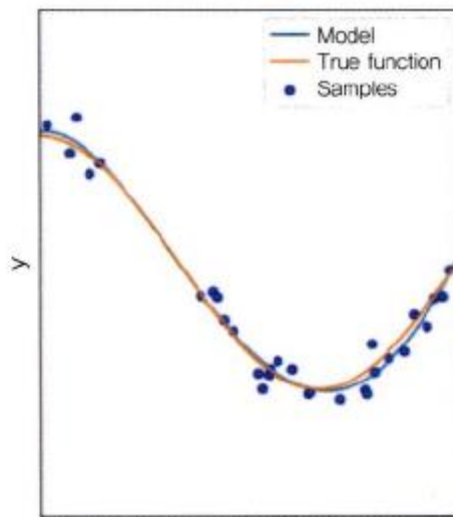
# 과잉 적합 VS 과소 적합

Degree 1  
MSE =  $4.08e-01$ ( $\pm 4.25e-01$ 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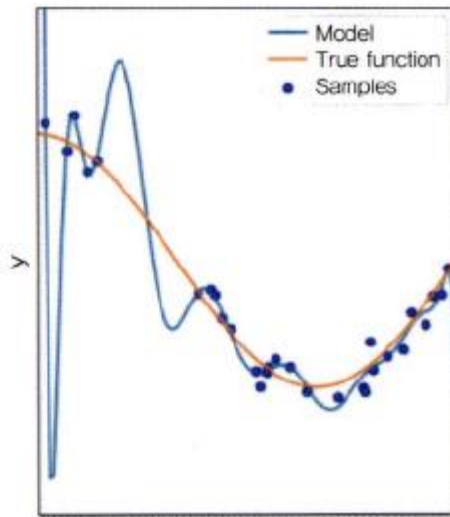
(a) 과소적합

Degree 4  
MSE =  $4.32e-02$ ( $\pm 7.08e-02$ )



(b) 일반화

Degree 15  
MSE =  $1.83e+08$ ( $\pm 5.48e+08$ )



(c) 과잉적합

그림 4-11 회귀에서 과잉 적합의 예(출처: 사이킷런 홈페이지)





# Mini Project: 면적에 따른 집값 예측

- 사용자가 아파트 면적을 입력하면 아파트의 가격이 출력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.

